

서호인의 '좌측담장'



놓지 마세요, 감독님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의 별명은 '놓둠남'이다. 동사 '놓다'와 명사 '감독님'의 절묘한 합성어는 상대방의 3피트 파울을 지적하며 2루 베이스에 발끝을 대고 누운 김기태 감독의 기묘한 항의에서 비롯됐다. 보통의 감독은 "내 키보다 더 멀리에 주자가 있었는데 이게 3피트가 안 된다고?"라고 말로 항의했겠지만 우리의 놓둠남은 곧바로 드러누웠다. 대부분의 항의가 그렇듯 판정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장면은 김기태 감독의 스타일을 말해 주는 결정적 한 장면이 되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위기 상황, 마운드에는 (KBO 리그의 많은 투수들이 그렇듯) 제구력이 뛰어나지 않은 젊은 투수가 있다. 그에게 떨어진 사인은 고의사구. 여기까지는 평범하다. 그런데 3루수가 저박저박 홈플레이트 쪽으로 걸어가더니 포수를 지나쳐 백넛 앞에 서는 게 아닌가? 고의사구 상황에서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 폭투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의 기발한 작전이었지만, 심판의 제지로 무산되었다. 규정에 의하면 투수

가 공을 던지기 전에 모든 야수는 파울 라인 안에서 인플레이를 기다려야 한다. 야구 규칙이 감독의 아이디어를 따라오지 못한 셈이다. 달리 말해 감독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김기태 감독의 야구는 현대 야구의 특성과 결이 좀 다르다. 점점 통계와 기록의 영역이 커지는 야구에서 그의 야구는 보다 본능적이다. 팬들이 체감하기에 감독의 감에 게임을 맡기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보듯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관계로 운영과 작전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언론과 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김기태, 하면 떠오르는 '형님 리더십'은 데이터로 따질 수 없는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감정의 영역이어서 좋을 때는 좋은 형님이겠지만 안 좋을 때는 바로 그 형님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형님도 있다. 최고령 투수 임창용. 해태 시절부터 타이거즈를 응원한 팬들이라면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임창용이다. 우승의 영광, 해외 진출, 불미스러운 사고 등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고향 팀에 돌아온 그는 젊은 투수와 경쟁하면서 이를 이겨 내고 경기에 나섰다. 보직 문제로 김기태 감독과 갈등이 있었다는 루머가 있지만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웠다. 비록 와일드카드 결정전이었지만 가을 야구를 위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제몫을 해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후 그는 방출되었다. 충격적인 방출 소식과 맞물려 김기태 감독에 대한 여론도 극도로 싸늘해졌다.

일부 팬은 시위로 의사를 표현했는데, 여기에 김기태 감독이 불고기감압과 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소식이다. 여러모로 특별하고 특이한 성격임은 확실한데, 팬들의 불만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애뜻한 형님 투수의 급작스러운 은퇴는 도화선이었을 뿐, 다소 추측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이는 팀 운영, 선수 기용에서 엿보이는 고집 혹은 변덕, 자라지 않는 유망주, 밥 먹듯 당하는 역전패와 끝내기패……. 성격이 하라하면 꼬집는 것이 많아진다. 2017년에는 애칭(愛稱)이었던 '놓둠남'이 2018년에는 별칭(蔑稱)인 '놓둠'이 되고 말았다. 김기태 감독

이름이 가장 잘 알려졌지만, 프로는 어쨌든 성적인 것이다.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김기태 감독의 계약 기간은 남아 있고, 계약이 파기되거나 경질될 기미는 없다. 그라운드에 놓고, 3루수를 포수 뒤로 보내고, 시위하는 팬들에게 감압을 건네는 그의 스타일은 어쩌면 창의적인 작전과 참신한 운영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지도 모른다. 하지만 올 시즌은 아니었다. 다음 시즌은 어떻게? 그는 뜻밖의(?) 우승 이후 찾았은 암흑기를 벗어나게 해 준 감독 감독이기도 하다. 그가 진정 어떤 감독인지 다음 시즌부터 잘 알 수 있을 듯하다. 그가 원하는 코칭 스텝, 그가 원하는 선수, 심지어 그와 가까운 단장……. 멍석은 깔렸다. 그런데, 멍석 아래 어떤 가지사발길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찌 됐든 우리의 감독님이 놓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투박투박 걸어서 통과하기를, 성적으로 말해 주기를, 그것이 팬들의 바람일 것이다. (시인)

의료칼럼

극한의 간지러움 아토피 주의보



이은지 청연한방병원 피부비만센터장

단풍이 짙어가는 완연한 가을, 건조한 날씨 속에 아토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예전에는 유아 혹은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대기 중의 미세먼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성인 중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잦은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습진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뒤얽려 발병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재발이 잦기 때문에 치

료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이다. 임상 증상도 피부 건조증, 습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이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소인, 면역학적 반응 및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을철은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가려워지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증세가 악화되기 쉬운 계절이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더위가 꺾이고 대기 중의 습도가 낮아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대개 낮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가렵다가 초저녁이나 한밤중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사이클을 보인다.

가려워서 긁게 되면 습진성 피부 병변이 생기고, 이러한 병변이 진행되면서 다시 더 심한 가려움이 유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변 환경 및 생활 습관에서 악화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진 것으로는 급격한 온도 혹은 습도의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 모직이나 나일론 소재의 의류, 세정력이 강한 세제나 비누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목욕할 때 비누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하며, 세탁 후 옷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잘 헹구는 것이 좋다. 모직이나 나일론 소재로 만든 의류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집 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이나 카펫 등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하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자주 바르도록 한다. 잦은 목욕은 피부를 한층 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일을 두고 목욕하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팜, 노폐물들을 제거해 수분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한다.

목욕물은 너무 뜨거우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가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아물러

때를 밀게 되면 피부가 강한 자극을 받아 더욱 가렵게 되고 건조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아토피의 원인을 습열과 풍열로 나누는데, 가을철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은 풍열로 인한 아토피 증상으로 보고 있다. 이때 몸속에 쌓인 풍열을 배출시키고 피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재로 한약과 침, 뜸 등의 요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제, 면역 조절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사용된다. 하지만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 고지혈증, 소화성 궤양, 부신피질 기능의 저하, 뼈 연성증, 감염에 대한 저항성 저하, 성격의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토피의 증상과 재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양-한방 협진 치료가 도움이 된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고

지하철 2호선 공론화 위기, 민주당이 나서야



이민철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

지난달 29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하철 2호선 공론화 절차를 중지하고, 공론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리고 공론 조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지하철 2호선 저지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론화가 두 번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10월 10일 여론조사 개시를 앞두고 발생하기 시작했다.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1차 여론 조사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광주시가 무리수를 뒀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시내 곳곳에 수백

장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만 장의 홍보물을 가가호호 뿌렸다. 건설 관련 단체들도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

핵심적인 문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기율적인 운동장이다. 찬성 측은 시민의 세금인 공공예산으로 열 배가 넘는 홍보물을 쏟아 붓고, 공공 조치가 움직이고 있다. 반대측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고 홍보를 하고 있다. 선거로 비유하면 관권 선거, 불공정 선거인 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없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찬성 활동을 허용했다고 한다.

백 보 양보해 도시철도공사가 찬성 역할을 맡는다면, 찬반 양쪽의 홍보 활동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 했다.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만큼 반대측에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다. 일체의 홍보를 금지하고 공론화위원회가 TV 토론회를 주관하며 공동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다.

파형을 낳은 두 번째 문제는 광주시장과 공무원들의 중립 문제다.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문제의 공론화를 요구한 주체다. 공론 조사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와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공론 조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시장이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는 데 과연 공무원 조직이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섭 시장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광주는 지금 협력과 협치가 절실한 시간이다. 신뢰가 생명적이다. 믿어붙이면 진행은 되겠지만 또 다른 시민들의 마음을 잃게 된다. 많은 행정 절차가 시장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시장을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선택이다.

민주당이 중재자, 해결사로 책임 있게 나서주면 좋겠다. 광주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광주시의회의 절대다수를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 중립 위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 문제가 고쳐질 수 있도록 역할을 마무리해주면 좋겠다. 문제가 있는 곳에 정치의 역할이 빛나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 파형은 막아야 한다.

社說

지방분권 강화 시도 간 재정 격차도 고려를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지방 분권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민 참여권 보장과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등이 핵심이다.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인상하는 등 재정 분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발의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사무 직원 인사권은 기존 시도지사에서 의회 의장에게 넘기고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다. 또한 각 시도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게 됐다.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준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員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과 교부세 감소분을 빼면 6조 6000억원의 지방 재정 순증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탄실하게 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광주·전남 지자체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 분권은 세수가 많은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돼 전남처럼 낙후된 지자체도 재정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분권'과 함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지역에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거래 확대 등으로 수산물 유통 비용 낮춰야

시장이나 마트에서 명태·고등어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돈 중 절반이 유통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인데, 수산물의 유통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소비가 많은 4대 주요 수산물의 유통비 비중이 지난해 평균 5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품목별 생산에서 계통출하량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로, 명태(냉동)가 66.3%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등어(선어) 56.7%, 오징어(선어) 45.9%, 갈치(선어) 44.7% 순이었다.

수산물 유통 비용률이 높은 이유는 6단계의 복잡한 유통 경로와 각 유통 단계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탓이다. 현재 수산물 유통 단계는 생산자에서 위판장

(경매), 산지 중도매인, 소비자 도매시장(경매), 소비자 중도매인, 소매상 등 6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복잡한 구조이다.

이에 반해 유통 단계별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수산물 유통의 시발점이자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인 위판장 220개 중 20년이 넘는 위판장이 64곳(29.1%, 2017년 기준)에 이른다.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 시설에서 수산물을 담는 상자의 규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도 유통 비용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

높은 수산물 유통 비용은 생산자보다는 수산물 중간상이나 유통업체의 배를 불리게 하는 잘못된 구조다. 또한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물류 표준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직거래 확대, 산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유통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28년간 지속되던 독일 분단의 상징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파리아파트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한 남자는 지인의 개인 전용 제트기를 빌려 급히 베를린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의 유명한 관문인 '체코포인트 찰라'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더니 연주를 시작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브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1927~2007). 그가 이날 연주한 음악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 중 '사라방드'

평화를 연주하다

그 당시 연주 모습은 전 세계 TV로 생중계됐고 평화를 기원하는 노(老)첼리스트가 담담하게 연주하는 바흐의 선율은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유튜브로도 만날 수 있는 그 영상은 지금 보아도 감동적이다.

11살의 첼리스트 장한나를 발탁한 인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스트로포비치는 레닌상과 스탈린상을 수상한 소련의 인민예술가였다. 하지만 반체제 작가로 노벨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에게 거주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 미국 망명 후에는 사하로프 박사 석방 항의 콘서트를 여는 등 자유를 향한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음악으로 평화의 씨를 뿌린 이는 그 말고도 또 있다. 1992년 5월 어느 날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사라예보 시민 2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다음 날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첼로를 들고 나타났다. 사라예보 오페라 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였다. 그는 폭격으로 무너진 국립도서관 잔해 위에서 홀로 첼로를 연주했다.

시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점령군은 음악가를 저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고 그는 희생자 수에 해당하는 22일간 연주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가 들려준 곡은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였다. 이 실화는 픽션이 더해져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소설로도 발간됐다.

평양 공연 '바이 온다'의 화답 형식으로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가을이 왔다' 공연이 답보 상태여서 아쉽다. 11월이 시작됐다. 이 가을이 가기 전 '가을이 왔다' 공연이 광주에서 열려 분단의 철조망 위에 내려앉은 평화의 씨앗이 작은 싹을 틔웠으면 좋겠다.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